

보도자료			IFPK 한국재무설계협회
보도일	2026.2.24.(화) 조간		
배포일	2026.2.24.(화)		
서울시 마포구 큰우물로 75 성지빌딩 17층 한국재무설계협회 김지욱 팀장 / 02-3276-7612, jwkim@ifpk.org , gio0703@gmail.com			

제목: 한국FPSB, ‘한국재무설계협회(IFPK)’ 로 법인명 변경
 - 신규 법인명에는 설립 25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미래 25년의 비전 제시를 담아



- 사단법인 한국FPSB(이전 명칭)는 2026년 2월 4일부로 법인명을 사단법인 한국재무설계협회(IFPK, Institute of Financial Planning Korea)로 공식 변경했다고 발표했다.
- 이번 법인명 변경은 고객과 시장에 더욱 명확하고 신뢰성 있는 브랜드 이미지를 전달하기 위한 조치로 지난 25년간 축적해온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25년을 내다보는 전략과 비전을 반영한 것이다.
- 한국재무설계협회(IFPK)는 비영리단체로, 2000년에 국제CFP평의회 회원국으로 가입하면서 ‘한국FP협회’ 라는 이름으로 출범했다. 이듬해인 2001년 제1회 재무설계사 AFPK 자격시험과 2002년 제1회 국제재무설계사 CFP 자격시험을 시행하면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으며, 2004년부터는 한국FP협회에서 분리되어 ‘한국FPSB’ 로 운영되어 왔다.

- 국제FPSB와의 CFP 라이선스 계약 종료에 따라 법인명을 한국재무설계협회(IFPK)로 변경하고, AFPK 자격인증을 중심으로 국제표준(ISO)에 기반한 금융 전문자격자 양성과 개인 재무설계 보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.
- 최문희 한국재무설계협회(IFPK) 회장은 공공과 민간영역을 아울러 재무상담 사업에서 총 6만 여명의 재무상담 서비스 운영 경험을 인정받아, 지난 10일 금융위원회가 정부 서울청사에서 개최한 ‘청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 TF(태스크포스)’ 킥오프 미팅에 재무상담 전문기관 대표로 참석해 재무상담 사업 사례를 발표한 바 있다.
- 최 회장은 “이번 법인명 변경은 재무설계 서비스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는 상황에서 매우 의미있는 전환점”이라며, 국민에게 보다 실질적인 재무설계 가치를 제공하고, 생애설계와 AI 도입 등 사업 영역을 확장해 자격인증자와 함께 성장해 나가겠다” 고 말했다.
- 한국재무설계협회(IFPK)는 신규 법인명에 맞춰 로고와 디자인 시스템, 커뮤니케이션 전략 전반을 재정비 하는 브랜딩 리뉴얼 프로젝트에 착수했다. 또한 디지털 환경에 적합한 브랜드 경험 제공을 위해 온라인 채널과 홍보 콘텐츠도 단계적으로 개편할 계획이다.
- 한편, 제93회 AFPK 자격시험은 오는 3월 21일(토)에 실시될 예정이며, 현재 원서 접수가 진행 중으로 마감일은 3월 9일이다. 올해에도 3월, 8월, 11월 총 세 차례 시험이 예정되어 있다.

참고자료. 한국재무설계협회 임시로고(새로운 브랜드 아이덴티티 추후 발표)

